

특별기고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2020년 7월,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가 시작했다. 새로운 출발점은 누구에게나 설렘을 갖게 한다. 앞으로 2년,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는 전남의 농수산 정책과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 필자 또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전남은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자 농업 비중이 큰 지역이다. 설렘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심이 시작된 이유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농어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소멸이 가까운 미래일 수 있다는 통계를 더 눈 에 뚫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농가 인구는 50.7%로 전국 평균 46.6%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피해를 준 데 이어 사상 최악의 냉해, 마늘 가격 폭락 등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다.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사회문제로 다뤄진 지 오래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기에 농업인 인구 감소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찾아진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폭락에도 여전히 해안이 필요하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농어업 인구감소 극복과 농어민 소득 증대를 의정활동의 중심에 놓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어민 삶의 현장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갈 계획이다.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함께 상임위를 운영하는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은 친환경 인증면적이 전국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친환경농업이 특화된 지역이다. 친환경농업의 외형적 성장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귀결되려

면 친환경 실천 농가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자 신뢰 확보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전남은 또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52%, 2조7천억원 규모로 우리나라 수산업을 끌고 가는 기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액은 39%, 가공액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득 창출에 필요한 수산 시설과 기술부족 등은 수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 1위의 농수산물 생산지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미래 농업 대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한다면 농어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인구감소 극복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농업인 소득증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농어촌이 직면해 있는 교통, 의료, 문화, 교육, 복지 등 열악한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 정주여건을

개선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어촌 만들기 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어 간다. 미래 전남의 농어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할 점은 없는 지 현장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전남의 귀농, 귀어, 귀촌 정책에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다양한 정책 농수산 발전 선도

전남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를 시발점으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농도인 전남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단초 역할을 했음은 분명한 일이다.

앞으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장인 중책을 맡았다. 농어업인의 이해를 대변하고, 현장에 스며드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도의회에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사설

코로나19 방심 대규모 확산 부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더 빠른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미국 듀크대·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원 등)가 나왔다.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강하다는 연구진의 발표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는 연구진의 보고다. 실제 지난 주부터 광주와 대전 등에서 급격히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전파속도는 2~3월 대구·경북지역 유행 당시보다 훨씬 빠르다. 지역사회의 대규모 확산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전파, 이른바 ‘깜깜이 감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대구·경북 집단 감염 사태 때만 해도 확진자는 대부분 경로 추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엔 방문판매업소나 요양원, pc방 등 소규모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경로 추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것이라던 당초 예측은 옳아지고 현재로선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 해 보인다. 여기에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으로 시민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 점 등 대규모 확산은 더욱 우려되고 있다.

2차 유행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나 방문판매업소, 음식점, 요양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해 당분간 강력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야 한다. 집단감염원 차단을 위한 인력·재정 확보 등 선제적 조치도 시급하다.

등록금 감면 대학이 응답해야

코로나19로 시작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 2학기도 한 비대면 수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환불 목소리로 거세게 일고 있다.

앞서 건국대도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방식으로 2학기 등록금 감면을 내놔다. 총학생회와의 합의 끝에 등록금의 8.3%를 반환기로 결정했다. 2학기 등록금에서 적게는 29만 원, 많게는 39만 원까지 감면된다. 대학 당국이 학생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1학기에 쓰지 않은 장학 예산을 환불 재원으로 쓰기로 한 것이다.

등록금 반환 화살은 지역대학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인 전남대 정병석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지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석 총장은 최근 학생들과 가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 자리에서 공통 반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집행이 보류된 사업비 등 사용 가능한 자투리 예산을 끌어 모아 교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고 대학들이 재정여력 부족만 내세운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 한 학기에 평균 400만원 이상 비싼 등록금을 내고 집이나 카페를 전전하며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응답 할 때다.

기고



정기연
전 영암신복초 교장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을 인생이라 하는데 인생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 혼자 간다. 혼자 사는 인생이지만 같이 사는 것은 그림자며 마음속에 같이 사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신인 하느님 부처님 조상신 등이다.

혼자 사는 인생이지만 혈연관계의 부모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으며, 손주도 따지면 부부는 무촌이고 부자간은 1촌이며 형제간은 2촌이다. 무촌과 1촌의 관계에 사는 사람은 법적으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으면서 산다.

이처럼 혈연관계는 가까운 관계를 말하

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가까운 것은 무촌인 부부간이다. 부부는 그림자처럼 가까이서 무촌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는 미래에는 혼자 살게 되어 있다.

혼자 사는 인생은 많은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가진 것들은 주고받으면서 상부상조하며 어울려 산다. 혼자 사는 인생은 가진 자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가진 자가 되고 보람을 느끼며 살다가 인생 말년에는 가진 것을 베푸는 즐거움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간다.

죽음에서 빈손인 것은 누구나 공통적이다. 빈손으로 혼자 태어난 인생이지만 지식정보 기능을 배우고 익혀 가진 자가 되고, 돈을 벌고 모아 가진 자가 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사람을 많이 아는 가진 자로 살게 된다.

인생의 노년에는 고독이라는 인생 본연의 현상을 느끼며 살게 된다. 그 많던 친구들도 거리가 멀어져 없어지고 전화 한 통도 할 수 있는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친구도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혼자인 나를 발견하게 된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을

인생은 혼자랍니다

때 나를 대신해 나의 고통을 감수할 사람은 없으며 나의 고통은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 인생은 죽음의 순간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쓸쓸한 인생인 것을 느끼고 반성하게 된다. 자식들도 해가 갈수록 멀어진다. 마지막 순간 죽음에서는 혼자가 되는 혼자란다고 표현하게 된다.

미국에서 조사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늙었지만 많은 친구와 더불어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이 사는 인생을 말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만남을 많이 해서 친구를 만들며 살아야 한다.

젊은이는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지만, 노년의 늙은이는 사람을 벌기 위해 만남의 광장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만남이 없는 곳은 무덤 속이다. 살아 있으면서 무덤 속에 살아가는 안 된다. 죽기 전에 사람과의 만남 환경과의 만남 새로운 지시정보와의 만남을 위해 주어진 시간을 보람 있게 써야 한다. 역만장자 오나시스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많이 가진 것이 결코 행복하지 못했음을 후회했다 하며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는 혼자인 인생을 후회하

며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빌 게이츠는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즐거움에 산다고 한다.

혼자 왔다가 혼자 살고 혼자 가는 우리 인생을 보람 있고 후회 없이 살다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혼자 사는 인생이지만, 혼자자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없이 전진하는데 이것은 혼자이지만 의지하며 같이 가는 긍정의 지팡이가 있고 믿음의 신과 같이 가고 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면 연약하고 무력한 인생이지만 나를 도와주는 같이 가는 분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용기가 나고 힘이 솟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문명과 문화의 도움과 주변 사람의 도움 속에서 혼자자 아닌 더불어 살고 있는데 절해고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며 혼자 사는 방법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인생은 비록 혼자 살다 가지만 나를 따르는 그림자와 임마누엘 하느님과 거울 속의 나와 함께 살다 간다. 거울 속의 내가 웃도록 항상 웃으며 살자.

여주고 배우로까지 정비를 해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태풍이 시작되면 밖으로 외출은 최대한 삼가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안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줘야 한다.

공사 중인 공사장, 해안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벼락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주의사항만 잘 지켜준다면 이번 여름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성소방서 별곡119안전센터 김수현

특지광장

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 풍속 17m/s 이상의 폭풍을 동반하는 자연현상이다.

태풍은 주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며 간혹 10월 이후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매년 여름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근 동아시아까지 피해를 주는 이 태풍은 항상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재산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시킨다.

태풍 대비하는 자세 갖춰야

2019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링링(LINGLING)’은 서해안을 지나 중부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사상자는 사망자 포함 27명이나 발생하고 1만 4천 ha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입혔다.

이러한 태풍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특별히 신경 쓰고 대비해야 한다.

우선은 뉴스, 라디오를 통해 언제 태풍이 북상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태풍이 예측되는 날짜에 산간, 하천, 계곡지역의 방문을 피해야 하고 그 장소에 있다가 태풍을 접촉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단단히 결박하고, 깨질 위험이 있는 창문은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는 게 좋다.

농가 또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 농업시설물 등을 끈으로 단단히 묶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단)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 집 부 (062) 720-1070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4 • 세화방 010-6633-8826 • FAX (062) 720-1080-81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32			
사 회 부 (062) 720-1050-54		전 산 실 (062) 720-1033			
사 회 2 부 (062) 720-1044		월 간 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문 화 부 (062) 720-1071		판 매 국 (062) 720-1004			
체 육 부 (062) 720-1041		사 업 국 (062) 720-1011,1099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주산신문주필모사					